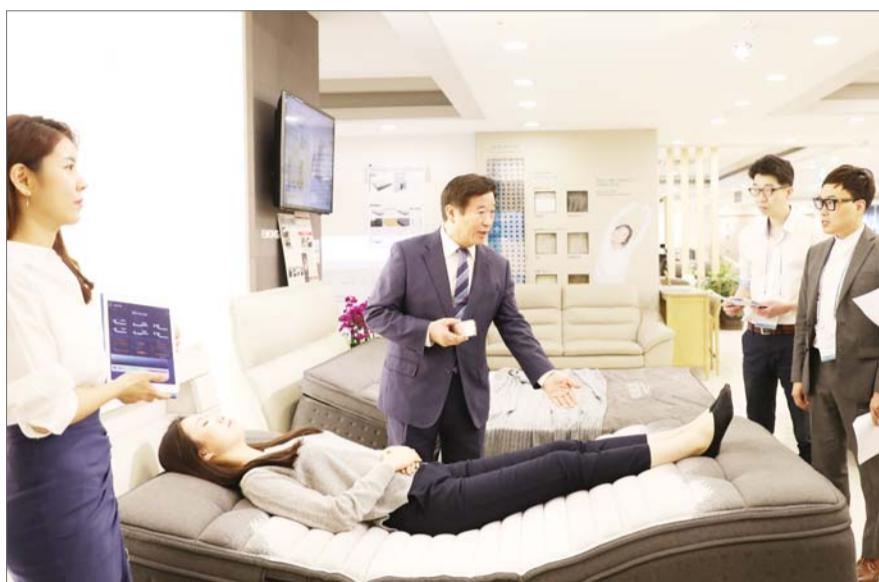


에몬스가구 “친환경·ICT 접목 신제품으로 승부수”

F/W 가구 트렌드·신제품 품평회
침대·식탁·소파 등 70여종 선봬
매트리스 전제품 ‘안전성’ 인증
“편의성으로 소비자 감동시킬 것”



김경수 에몬스 회장(왼쪽 두번째)이 대리점주들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몬스

제품을 공급해 왔다”면서 “자연 소재를 그대로 사용한 친환경 가구, 스마트한 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가구로 소비자들을 감동시키겠다”고 밝혔다.

회사가 이날 새롭게 선보인 ‘로즈 화이트’, ‘로즈 골드’ 침실시리즈는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변색우려 없이 오랫동안 아름다운 컬러를 유지하는 고급소재

인 강화유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로즈화이트는 기품 있는 백자의 아름다운 컬러를 재현했으며, 로즈골드는 샴페인 골드의 럭셔리하고 편안한 색감을 강화유리에 표현해 고급스러움과 친환경 콘셉트를 극대화했다.

또 고품격 자연 소재를 사용한 하이엔드 제품으로 이뤄진 에르디앙스(ERDIA NCE) 소파는 고급 가죽의 두께감이 느껴지는 통가죽을 소파 전체에 사용했다. 그린, 청록, 딥네이비, 인디 핑크 등 개성 있는 컬러를 사용해 공간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했다.

매트리스 브랜드 ‘노블앙’은 공인된 시험기관인 한일원자력을 통해 기존 공급한 매트리스 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도 받았다.

최근 일부 회사에서 매트리스를 놓고 불거진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선보인 ‘블랙넘버7’은 고밀도

천연라텍스를 75mm 사용했다. 또 그 위에 무독성 폼 45mm를 적용해 누웠을 때 마치 내 몸을 감싸 안아주는 듯한 포근함과 탄력감을 느끼게 했다.

E모션 매트리스는 ‘웰 슬립센서’를 이용해 잠을 자는 동안 호흡, 심박, 뒤척임, 무호흡, 코골이 등 5가지 건강 측면을 측정해 최상의 수면 상태를 위한 모션을 작성시킨다. 또한 수면 시 침대의 무드 조명이 자동으로 꺼지고 아침 기상 시 무드 조명이 다시 켜지는 기술도 적용했다.

에몬스가구는 대리점주들을 초청한 신상품 품평회를 매년 2회씩 열고 있다. 여기서 대리점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제품을 하반기 시장에 선보인다.

김 회장은 “대리점과 본사가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창작활동 지원… 전국 65개 전문공간 조성

중기벤처부 ‘메이커 스페이스’
일반형 60곳·전문형 5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들의 창작활동을 돋기 위해 전국 공모를 통해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65곳을 처음 선정했다. 특히 이들 공간을 2022년까지 전국에 350여 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총 391개 기관으로부터 메이커 스페이스 응모접수를 받아 이 가운데 평가와 이의신청 등을 통해 일반형 60곳과 전문형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형 공간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공간 마련, 장비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1곳당 2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미추홀도 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시흥산업진흥원 등이 대표적이다.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창작활동을 돋는 전문형 공간에는 30억원 내외의 예

산이 돌아간다.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기존 창업 인프라와 연계해 사업회를 지원하고 지역 메이커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거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서울산업진흥원, 고려대, (주)N15, 전남대, 경북대 등이 전문형으로 선정됐다.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금천구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청년 제조창업과 기업의 제조혁신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대장간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N15는 이를 바탕으로 우수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제품 제작·양산까지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선정된 기관은 오는 9월까지 공간 및 장비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2022년까지 전국 350여개의 공간을 확대 추진하고, 야간·주말시간 개방 등 탄력적인 공간 운영과 자체 수익모델 발굴을 통한 중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으로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메이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企 절반 청렴의식 수준 ‘보통’ 인식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306곳 설문
10곳 중 6곳은 관련 제도 운영 안해**

중소기업의 절반은 자신들의 전반적인 청렴의식 수준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10곳 중 6곳은 ‘반부패·청렴’ 제고를 위해 어떤 제도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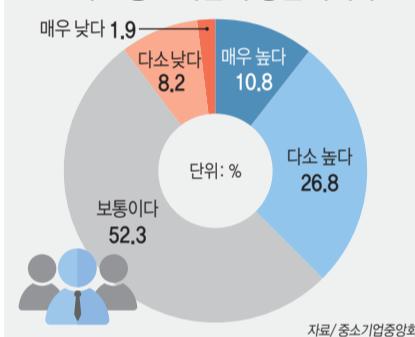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6곳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의식 인식 현황 조사’를 실시해 1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52.3%가 청렴의식 수준을 ‘보통’이라고 답했다.

다면 ‘높다’(매우높다+높다)는 답변은 37.6%로 10.1%인 ‘낮다’(매우낮다+낮다)보다 많았다.

종업원수가 50명 미만이거나 매출액이 100억원에 못미치는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의 청렴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가운데 61.1%는 ‘도입해 운영하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청렴의식 수준



현장 제정’(14.4%)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도 일부 있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반부패·청렴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소기업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71.2%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안된다’는 28.8%였다.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78.9%)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61.1%)보다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월등하게 많았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근로자와의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응답기업의 83.0%가 ‘공감’을 표했다.

청렴의식 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정부·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행정 강화’가 49.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 정책 강화’(36.9%), ‘우수 청렴기업 정부포상 실시’(34.0%) 등의 순이었다.

/김승호 기자

양천구간호사회 ‘아름다운 여성되기’ 교육 호응

이대목동병원 현석경 간호부원장

서울시 양천구간호사회가 지역 사회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교육 사업이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현석경 간호부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양천구간호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국민 사업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여성되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을 목표로 기획된 이 사업은 지역 내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유방암, 성교육 관련 강의를 제공한다.

양천구간호사회는 2018년 교육 사업으로 지난 6월 15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양천구 소재 2개 고등학교에서 ‘아름다운 여성되기’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5일 광영여고에서 진행된 교



양천구 간호사회가 진행하는 ‘아름다운 여성되기’ 강의 현장. 현석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육에서는 이대목동병원 김수진, 차미정 간호사가 강사로 나서 학생 및 교직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방암 자가 검진법, 성교육 등에 대해 강의해 여학생들에게 필요한 좋은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휴넷 전문가-기업 연결… ‘탤런트뱅크’ 론칭

쌍방간 갈등시 1억원 내 중재비 지원

평생교육기업 휴넷이 퇴직한 분야별 전문가와 인재에 목마른 중소기업들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기업의 경영전략·신사업, 영업·구매, 인사·노무, 재무·회계, IT,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전문 분야에서 오랜기간 근무했다 나온 퇴직자 풀을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출시하면서다.

휴넷 조영탁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탤런트뱅크’ 론칭 간담회를 갖고 “매년 30대 그룹에서 퇴직하는 임원급만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쌓아온 업적과 경험을 퇴직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은 고급 인재를 영입하기 원하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돼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탤런트뱅크는 산업 분야별 검증된 전문가를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게 매칭해 기업이 필요한 기간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매칭 플랫폼이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탤런트뱅크에 맡길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전담 매니저가 2~5일간 전문가를 모집해 기업과 미팅 등을 주선해준다. 프로젝트 등록은 3분 정도면 충분하다. 해당 전문가가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쌍방간 계약은 탤런트뱅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 중간, 또는 완료시점에서 오가게 되는 서비스 대금도 탤런트뱅크를 통해 이뤄진다.

수수료는 일자리를 원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만 15%를 부과하고 있다. 클라



휴넷 조영탁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새로 선보인 ‘탤런트뱅크’를 설명하고 있다.

이언트인 기업에게는 현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조 대표는 “구직자는 1개월, 3개월 등 기간별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고용부담 없이 전문가를 일정 기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쌍방간 갈등이나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는 1억원 이내에서 중재 비용 전액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퇴직한 중소기업 임원, 대기업 팀장 이상이면 누구나 탤런트뱅크 전문가에 지원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